



전 스웨덴 대표 소장 리나 페르손 헐리즈

리나 페르손 헐리즈 소장은 1991년 의무 복무로 군 생활을 시작하였으며, 이후 고덴버그 소재 스웨덴 제 4해병연대에서 소대장, 중대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. 2008~2020년에는 매년 한 달 동안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.

1997~1998년에는 보스니아에서 소대장, 2007~2008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스웨덴 정보반장, 2010년에는 코소보에서 스웨덴 파병단장, 2012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 지원단의 군사고문단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.

2008~2009에는 스웨덴 군사정보보안국의 아프가니스탄과장, 2013~2014년에는 스웨덴 국제평화군센터장, 2015~2017년에는 국방부 군사고문직을 역임하였습니다.

2011년에는 스웨덴군 사령부에서 해병구성군사 참모장 겸 작전계획처장, 2017~2018년에는 훈련, 모병 및 교육처장, 2019년에는 정책기획처장,

2020~2022년에는 정책기획부장직을 수행하며 스웨덴의 군사전략 작전계획 및 방침 가이드라인, 전력 발전, 연구 혁신, 군사전력상황도를 담당하였으며, EU (정책국장), NATO, 노르딕방위기구, 핀란드-스웨덴 협력기구, 미 유럽사령부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. 또한,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위한 군사력 통합 업무 뿐만 아니라 2019~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나 다국적합동위원회의 스웨덴 대표, 2020~2022년에는 스웨덴 최고사령관의 지휘부 부관으로도 근무하였습니다.

군 생활동안 우크라이나 공로훈장과 스웨덴 국왕훈장을 비롯해 다수의 상장, 훈장을 받았습니다. 배우자 프레데릭씨와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으며, 취미는 항해, 다이빙, 스톡홀름 군도 여행입니다.

진급사항

대령-2013

준장-2019

소장-2020

